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 환경의 우위성에 대하여*

김수용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나는 일본의 실업계·학계·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 앞에서 북한의 나진·선봉 개발 문제에 대하여 해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이 기회에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과 개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고, 제기되는 질문에 가능한 대답 하려고 한다.

첫째,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투자 환경에서 비교 우위는 무엇인가.

둘째,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 투자 실태와 제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먼저, 나진·선봉지역이 투자 환경에서 어떤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해설하겠다.

지금 세계적으로 자유지대가 가동하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자유지대들은 그것들대로 투자 환경에서 자기의 비교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지대가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성에는 해당 지대의 자연적·지정학적 조건, 사회적·역사적 조건에서의 우위성도 있고 정부의 노력에 의한 우혜적 조치에서의 우위성도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진·선봉지역 투자 환경의 우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지대가 다른 자유지대들에 비하여 자연적·지정학적 조건이 매우 유리하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나진·선봉지역은 동아시아와 중국, 러시아 그리고 구라파를 연결하는 대륙교의 관문적 위치에 있다. 이것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시장 접근의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이것으로하여 나진·선봉지역은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몇가지 자료를 보기로 하겠다.

일본의 니이가타항에서 중국의 훈춘으로 물자를 수송하는 경우 대련항을 거쳐가자면, 니이가

* 이 자료는 1996년 7월 15일 日本 東京에서 열린 북한의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발표된 것이다.

타-대련 사이 해상으로 1,070 마일(1,712 km), 대련-훈춘 사이 육로로 1,300 km이므로 배와 자동차 또는 철도로 10 일 이상 걸려야 하지만, 나진항을 이용하면 니이가타-나진 사이 해상으로 485 마일(766 km), 나진-훈춘 사이 육로로 130 km이므로 4 일도 안 걸린다.

결국, 나진항을 거쳐 훈춘으로 가면 대련항을 이용할 때보다 육상 거리는 1/10, 해상 거리와 수송 시간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나진항은 동아시아와 구라파를 연결하는 해륙 교차 분기점으로서의 유리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일본의 니이가타항에서 화란의 로테르담, 독일의 함부르크까지 가는 통로들은 스에즈운하 또는 케이프타운을 거쳐가는 통로와 태평양을 거쳐 미국을 통과하여 가는 통로가 있는데 수송 기간은 25 일부터 약 40 일간 걸리고 있다.

이것도 나진항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한다면 수송 거리 절반, 운행 시간은 약 1/4로 단축할 수 있다. 현재 나진-부산 사이의 컨테이너 정기선이 가동하고 있는데, 수송 시간은 연결에서 나진까지 4 시간, 나진에서 부산까지 약 40 시간 정도 걸리며 20 피트 표준 컨테이너 1 개를 나진에서 부산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400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항로를 금년 중으로 일본의 니이가타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나진·선봉지역의 이와 같은 지정학적 우위성은 “시간은 곧 돈이다”라는 기업 이념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매력을 끌고 있다.

바다와 육로를 통하여 낮은 수송 원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미주와 구라파 지역 시장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나진·선봉지역의 우위성으로하여 세상 사람들은 이 지대를 ‘황금의 삼각지대’라고 말하고 있다.

나진·선봉지역은 또한 풍부한 인적 및 물적 자원과 강력한 경제적 후배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는 14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곧 30만 명의 도시로, 전망적으로는 100만 대도시가 될 것이다. 나진·선봉지역의 1차적인 노동력 보충지는 함경북도인데 여기에는 약 200만 명이 살고 있다. 노동력의 질적 수준은 매우 높다. 북한은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공부하는 배움의 나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노동 능력이 있는 인구의 전부가 11년제 의무 교육을 받았거나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우를 보면, 농업 노력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지만, 나진·선봉지역의 노동력 구성은 공업 노동 경험과 숙련이 있는 노력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조직성있고 근면한 것으로 세상이 공인하고 있다. 그들은 그 어떤 현대적인 산업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과 합영·합작을 하고 있는

여러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평가하고 있다.

인구 1억 이상이 살고 있는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의 원동 그리고 방대한 공업 잠재력을 가진 북한의 청진지구는, 나진·선봉을 위한 강력한 공업·자원 후배지이면서 동시에 방대한 잠재적 시장이 될 것이다. 나진·선봉지역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역외 가공을 통하여 북한의 북방 대공업단지인 청진지구의 공업 잠재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동북3성과 러시아 원동의 방대한 자원과 용량이 큰 시장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투자 환경에서 우위성은 또한 북한 정부에 의하여 마련된 유연한 법적·제도적 조건들과 경쟁력 있는 우대 조치들이다.

자유지대가 좋은 자연적·지정학적·경제적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투자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조건이 불리하다면, 그런 지대는 외국 투자자들의 흥미를 끌 수 없을 것이다. 이로부터 북한 정부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 후 지난 4년 동안 이 지대에 유리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다.

북한 정부의 노력에 의하여 현재까지 40여 개의 투자 관련 법규들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자유지대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규들에 의하여 우선 이 지대는 투자 자격에서 제한이 없고 경영 형식과 방법에서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는 특수한 지역이 되었다. 이 지대에서는 국적과 사상 이념, 신앙과 국교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와 지역의 투자자들이 투자하여 경제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100% 단독 기업과 단독 은행업·보험업까지도 할 수 있다. 또한 이 지대에는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내왕 질서와 간편한 투자 신청 및 허가제도가 세워져 있다. 외국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내왕을 위하여 무사증제도를 실시한 것은 이 지대의 중요한 우위성이라고 볼 수 있다. 무사증제도를 실현하는 데서 아직도 미흡한 점들이 없지 않다. 지대 안에 비행장이 없고 정기 여객선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지대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원정-권하, 두만간-하산 교두이다.

얼마 전에 원정-권하 교두가 열림으로써 무사증으로 나진·선봉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었다. 또한 나진직승기비행장이 운영되면 연길-나진 사이의 직승기 항로도 개설될 것이다. 지대로 직접 들어오는 통로들이 점차 늘어나면 내왕 인원이 많아지는 데 맞게 무사증제도는 더욱 완벽한 것이 될 것이다. 투자수속체제도 간편하게 하였다. 투자자들은 지대 당국에 투자 신청을 하면 500만 달러까지, 하부 구조 투자 대상은 1,000만 달러까지 지대 당국이 직접 심사하는데, 그 기간은 합영·합작의 경우 최고 50일 걸리며, 단독 기업의 경우는 80일 걸리게 된다. 이것도 앞으로 외국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간소화하려고 한다. 이미 작성 공포된 외국 투자 관

런 법규들에 의하여 또한 지대 안에는 토지 이용 질서, 노력 채용 및 해고 질서, 세금 체계로부터 외국 투자 기업의 부기 계산 질서에 이르기까지 거시적인 질서뿐 아니라, 미시적인 질서까지도 다 정비되었다.

토지임대차제도에서는 국가가 토지소유권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그 이용권을 상품화하여 팔아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임차한 토지이용권은 판매, 재임대, 상속, 증여, 저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권을 임차자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였다. 토지 임대 기간은 50 년까지로 하고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차 면적에서 제한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개발한 면적이 방대하고 개발 자금 사정이 뻘뻘한 현 단계의 실정을 고려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광역 토지 개발 질서도 정연하게 세워 놓았다.

노력 이용에서는 투자자들이 지대 노력 알선 기관의 봉사를 받아 채용하며, 계약 조건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 현재 지대를 비롯하여 북한에는 실업자가 없다. 따라서 외국 투자가는 모집 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직접 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대에 노력 알선 기관을 내오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노력 채용 봉사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지대 개발이 활발해지고 노력 유동이 많아질 때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노력을 직접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리라고 본다.

나진·선봉지역에는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세금체제도 세워져 있다. 세금체제는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있는 문제의 하나인 만큼 우리는 공정하고 경쟁력있는 세금체제를 세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대 안에 적용되는 세금의 기본 종류는 기업 소득세, 거래세, 지방세이다. 그밖에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 개인의 건물·배·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세금제도에서는 낮은 세율과 긴 유예 기간, 여러 가지 감면 우대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납세 부담을 적게 주어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데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실례로 기업 소득세는 14%로 장려 부문인 경우에는 10%로 낮게 정하였으며 그 유예 기간을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3 년간 100% 면제, 그 후 2 년간은 50% 감세하여 3,0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하부 구조 건설 부문의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하여서는 이윤이 나는 해부터 4 년 면제, 3 년 감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윤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50%까지, 하부 구조 건설 부문에서는 100%까지 반환해주도록 하였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나진·선봉 지역의 세금제도가 경쟁력있는 세금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투자한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도 정확히 세워져 있다. 법에 의하여 외국 투자자들이 투

자한 재산과 얻은 이윤에 대해서는 국유화하거나 징발하지 않도록 담보되어 있으며, 이윤의 해외 송환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투자한 기술에 대한 비밀 보장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보장은 앞으로 쌍부적인 투자 보장 협정이 맺어짐에 따라 더욱 공고화될 것이다. 북한은 지금 스위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투자 보호와 이중과세방지협정 토의를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나진·선봉 투자 환경에서의 우위성은 투자 원가가 매우 낮은 것이다. 우선 부동산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다. 현재 이 지대에서 토지는 협상의 방법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그 가격은 50년간 평방미터당 공업 용지의 경우 5~20 달러, 주택 및 공공 건물 용지의 경우 10~25 달러, 금융·상업 봉사 용지의 경우 20~30 달러 사이에서 계약되고 있다. 이 임대료는 중국의 화남 지역이나 연해 개방 도시들 임대료의 절반밖에 안되며 훈춘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다. 결국, 50년간 임차한 경우, 토지의 연간 임대 비용은 가장 높은 토지 임대료의 경우 0.6 달러/m², 가장 낮은 토지 임대료의 경우 0.1 달러/m²밖에 되지 않는다. 토지 임대료외의 임차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수준은 매우 낮다. 토지 사용료는 토지를 50년간 임대해주는 조건에서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비용으로서 그것도 토지 관리비로 지출될 것이다. 토지 사용료는 1년에 0.5 달러인데 그것도 최고 10년까지 덜어주고 있으며, 4년 동안은 변동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변동시키는 경우에도 변동폭이 20%를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임차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 지대 안에서 건물 임대료는 월에 평방미터당 0.9 달러이며, 생산 시설 건설 단가는 평방미터당 233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부동산 비용이 낮은 것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 단계에서 우위성은 노력비가 낮은 데서도 나타난다. 현재 지대 안에서 노임은 월 80 달러로 협상되고 있다. 북한의 주 노동일이 6 일이며 하루 노동 시간이 8 시간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지대 안에서 시간당 노임은 0.4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 화남 지역의 1/3, 아세안 국가들의 1/10 정도의 노임 수준이다. 그리고 노임외의 추가적인 노력비 부담이 없다. 주변 나라들에서는 주택 기금, 교통비를 비롯하여 노임의 약 30%에 해당하는 노임외의 추가적인 노력비 부담을 기업에 지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추가적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임과 노력 단가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것 역시 나진·선봉 투자 환경에서 우위성의 하나라고 본다. 이밖에도 기타 공공 시설비가 낮다.

공업 용수 사용비는 1 m³당 0.12 달러, 전기 사용비는 1 Kwh당 0.04 달러, 도로 수송비는 톤당 0.085~0.23 달러, 철도 수송비는 톤당 0.011 달러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그 자체의 자연적·지정학적인 매력과 함께 외국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특혜적인 조치들, 유연한 법적·제도적 장치들로 인하여 유리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다음으로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개발의 현 실태와 문제점들에 대하여 말하겠다.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투자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세계의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지대를 고찰하고 투자에 착수하거나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에 자유지대를 선포한 지는 4년 남짓한데 이 기간을 놓고 볼 때, 첫 2년간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새로운 정책에 대하여 의심하면서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과정이었으며, 또 이 기간에 북한의 정세가 극도로 침체화되었다. 그러한 속에서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대로 찾아와서 고찰하고 투자 의향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점차 북한 정부의 개발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투자 열을 높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작년부터 투자가 급격히 활발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투자 계약 정형을 보면, 49개의 대상에 3억 5,000만 달러의 투자 계약을 맺었는데, 그 가운데 60%가 1995년에, 30%가 1996년에 5개월 사이에 맺은 것이다. 그 가운데 22개 대상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여 3,400만 달러를 이미 투자하였다.

현재까지 투자 실태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고 본다. 우선 계약 실적에 비하여 이행 실적이 높지 못한 것이다. 그 중요한 원인은 계약의 90%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기간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행하자면 일정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대부분의 계약 대상들은 현재 합의하는 시간표대로 추진되고 있다.

다음으로 투자에서 가공업에 대한 투자가 적고, 하부 구조,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많은 것이다. 49개의 계약 대상 가운데서 가공업 투자 대상은 8개이고, 나머지는 하부 구조 및 상업·운수·봉사·금융 분야의 투자 대상이다.

투자 구조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개발 초기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 지대에 아직 하부 구조의 정비 상태가 원만하지 못한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년간 하부 구조 정비에 약 1억 5,000만 원(약 7,000만 달러) 정도의 투자를 하였으며, 외국 투자도 이 부문에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도로·통신·호텔·항만 시설들이 정비돼가고 있다.

또한 투자에서 문제점은 대규모의 외국 투자에 비해 중소 규모의 교포 투자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개발을 시작한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있게 되는 현상이며 또 응당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해외 동포들의 투자에 뒤이어 최근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영국의 ING은행과 페레그린은행, 미국의 제너럴모터스, 보잉, 크라이슬러, MCL, 레이티온, 스탠튼그룹과 독일의 시멘스, 프랑스의 알케텔, 스웨덴의 에릭슨, 화란의 쉘회사들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대규모 다국적 기업체들이 현지 고찰을 끝내고 투자에 나섰거나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쉘회사는 이미 선봉항에 투자 용지 인대를 끝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운영이사회를 가지고 있는 태국의 록슬리회사는 이 지대의 통신 분야 약 3,000만 달러의 투자를 실현하여 30년간의 합영 이권을 획득하였다. 화란의 ING은행과 홍콩의 페레그린은행은 합영은행을 창설하여 개업하였다. 현재 대세를 관망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 투자자들의 투자 관심도 높아가고 있으며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에서 가장 큰 난관은 이 지대를 관리 운영할 인재가 부족한 것이었는데 이 문제도 급속히 해결되어가고 있다. 북한이 양성한 졸업생들이 지대 관리·운영에 인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 기구들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인재 양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외국 투자 기업에서 일할 일꾼들의 어학, 컴퓨터 교육을 위하여 직업교육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외국인 교수들도 초빙하여 9월부터 양성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 지대 안의 관리·운영 일꾼 양성 기지를 꾸리는 사업에 유엔개발계획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머지 않아 지대 안에는 정규 교육과 직업교육망체계가 정연하게 수립될 것이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필요한 능력있는 일꾼들을 보장해주게 될 것이다.

개발 도중에는 일정한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은 반드시 그러한 난관들을 타개하고 나진·선봉지역을 세계적인 자유지대로 개발해내교야 만 것이다. 統